



‘나는 누구인가?’ 질문 속으로 빠져 들어가다(첫회)

전도관에서 그 해답 찾고, 승리제단에서 정답 찾았다

나는 어려서 10살 무렵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밥을 먹는 주체는 누구인지, 말하고 생각하고 노래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느닷없이 “너는 누구니?”라고 묻곤 했는데 친구들은 그런 질문에 “무섭다”며 놀라는 표정을 보이곤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수 없고, 이런 생각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무서워지며 급기야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관에서 은혜를 받고 기쁨이 생겨

나의 이런 모습을 본 언니가 전도관에 다니는 친한 분에게 말하여 나는 그분을 따라서 전도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살 때였습니다. 전도관에 가니 궁금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해와이며, 나는 그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짓눌렀던 풀리지 않던 의문이 하나 둘 풀리고, 하나님의 창치는 해까지 받게 되니, 너무나 기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그후 영모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전도관에 예배 보러 가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설교하시던 영모님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시는데 나는 너무 너무 기쁜 나머지 남들이 볼까봐 얼굴을 파묻고 웃다가 다시 영모님을 바라보면 영모님은 계속 함박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전도관을 나오기 전에는 무서움을 많이 탔는데 전도관에 나온 다음부터는 담담해져서 시골에서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걸어도 전혀 안 무서웠습니다.

내가 다니던 전도관의 민경춘 관장님이 전도를 하라고 하여 집집마다 두드리며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여러 명을 전도하였는데 그중 7명이 신앙촌에

입주하였고, 나는 그러한 공로가 인정되었는지 민 관장님이 덕소신앙촌에 68년도 3월경 입주시켜 주었습니다.

덕소신앙촌에서는 제과부에서 일을 했는데 서로 경쟁이 붙어서 밥집을 줄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영모님은 여정 중에 10명을 뽑아서 소비조합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10명에 뽑혔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라 물건을 팔러 가도 어떻게 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 다 팔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덕소신앙촌을 거쳐 기장신앙촌에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니(최종식)를 전도하여 전도관에 이끌었는데 이 언니가 축복일이면 어김없이 기장으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안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밀실패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소굴에 들어갔으니 이제 영적으로도 칼같이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언니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피가 들어오고, 형제를 생각하면 형제의 피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소굴에 들어간 언니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알았던 것입니다.

우연히 밀실패로 끌려가다

오직 영모님만이 이긴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하던 어느 날 어떤 분이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밀실패 아니냐? 왜 나한테 물건을 사려고 하는냐?”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갈 때 친한 언니와 같이 나갔는데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여 그 언니는 타지 않았고, 나는 그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 일반 영업용택시였기 때문에 설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여 탔는



최종열 권사(앞줄 가운데)가 합창하고 있다

데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언니와 김목자 권사, 황 승사 등 밀실패가 나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언니를 보고 반갑기는커녕 ‘큰일났다. 마귀 소굴에 잡혀왔으니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나를 이곳에 강제로 데려온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탈출하려고 해도 틈을 안 주고, 주님 말씀을 틀어놓고 들어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꾸 들어보니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21일교 육을 받을 때에는 탈출할 생각뿐이라 예배도 건성으로 보면서 이임본 권사님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밀실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어떡하면 주님의 호흡 잡을까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밀실에서 키우는 개가 시름시름 앓아서 죽어가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측은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기에 ‘어디 두고 보자. 의인에게는 생명의 물질이 나오고, 죄인에게는 사랑의 물질이 나온다는데 이 개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하고 지켜보는데 조

금 있자 그 개가 필쩍 일어나서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밀실 식구들로부터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와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바로 아시는 주님

하루는 식구들이 밀실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일이 하기 싫어서 ‘일 안 해야지’하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죄 집사는 일 안 해도 돼”하시는데 그것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주님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촌에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삼충공당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보고 순종반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헌금을 하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순종반에 참석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삼충공당에 가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당에 들어가기를 권유하셔서 삼충공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것

입니다.

목시록 상 환돌 위에 소시라고 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곳에 와서 가장 놀랍게 깨달은 것은 목시록 2장에 나오는 환돌 위에 쓴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영모님께서는 환돌 위에 쓴 이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서 그게 뭘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소사(素砂)라고 써여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더욱이 일곱 살 때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깨어나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환돌 2개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중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바로 그 잃어버린 환돌을 주님께서 받고는 그 위에 소사(素砂)라는 글자가 한자로 써여져 있었다고 간증까지 해 주시어 이분이 바로 진짜 세 번째 이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헌금 사기죄로 1차 옥중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이 연단을 받아서 빛을 발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옥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무지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고 어디서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이 완성자가 분명하신데 제단에 등을 돌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광할 것을 선포하신 주님

주님께서 살인교사죄로 구속되시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주님께서 무죄로 석방되었다고 식구들이 기뻐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천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환돌을 입으시고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구들이 멀찌감치 서서 주님을 보고만

있지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멀찌감치 서 있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어디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나는 막 뛰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섬뜩함이 느껴지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참 이상한 꿈이다. 왜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라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보광하신 후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문득 그때 꿈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본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보광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구나’라며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광은 마귀를 속이고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돼

사실 주님께서 보광하셨을 때 전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주님께서 이긴자가 되셨을 때 “너는 이제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죄를 벗어났다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며 완성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사망이 온 것이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면 죽을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보광하셨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안이 병병한 가운데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마귀에게 삼긴 바가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광은 아마 주님께서 마귀를 속이기 위한 무슨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최종열 권사 / 본부제단

사사기에 삼손의 활약 시기를 숨겼다

단지파에 속한 삼손의 생존 연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유인즉 삼손의 생존 연대를 기준으로 한민족의 고조선 건립 시기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손을 잃은 단지파는 그후 동북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단지파는 블레셋과 2백여 년간 전쟁을 치름

성경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과 실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배도(背道)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사들을 세우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사기 3장에서 12장까지는 연대기 순으로 사사 웃니엘을 시작으로 사사 에훗, 사사 삼갈, 사사 드보라, 사사 기드온, 사사 돌라, 사사 아일 등 7명의 사사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사사 삼손을 연대기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아니하고 따로 떼어 사사기 13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삼손의 활약상과 단지파의 제사장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19장에서 마지막 2장까지도 역시 정확한 연대기를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베냐민지파가 몰살당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사사시대의 연대표]에 의거하여, 사사 삼손이 활약한 시기를 올바르게 찾아 넣는다면 사사 삼갈이 활약한 시기와 일치한다. 즉 기원전 1267년에서 1248년까지 삼손의 사사기간 20년을 이렇게 규명할 수 있다. 이는 단민족이 기원전 1405년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에 입성한 후, 가장 강한 블레셋 민족과 2백여 년의 전쟁을 치렀지만 승부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단지파의 장수 삼손을 잃은 직후 소라 땅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이주하여 알타이산맥에 와서 약 2백년간 우거한 후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기원전 1,000년경에 고조선을 건립하였다는 승리제단 조희성 구세주의 말씀과 합치된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 성읍의 초대 제사장으로 추대

기원전 1406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단지파는 기원전 1248년에 동쪽으로 이주를 시작하였다

사사시대의 연대표			
임명지 사사	기간	권원상구	통치 및 임명기간
가-간 광복월 기원전 1405년	16년	수 2429, 사 228	BC 1405~1390년
데소산대아 구산 마사다임의 임명	8년	사 338	BC 1390~1382년
사사 시대의 시작			
사사 웃니엘	40년	사 311	BC 1383~1344년
모압 애굽몬의 임명	18년	사 314	BC 1344~1327년
사사 에훗	80년	사 330	BC 1327~1248년
사사 삼갈	20년	사 331	BC 1267~1248년
가나안 왕 에훗의 복역	20년	사 43	BC 1248~1229년
사사 드보라	4년	사 531	BC 1229~1194년
미디안인의 임명	7년	사 61	BC 1190~1184년
사사 기드온	40년	사 828	BC 1184~1145년
아비멜렉의 임명	3년	사 922	BC 1145~1143년
사사 돌라	23년	사 102	BC 1143~1121년
사사 아일	22년	사 103	(이라기 72년 20년)
블레셋의 임명 40년 (BC 1121~1082년)	임명 40년 18년	BC 1121~1104년	사사 삼손 (BC 1121~1102년)
	사사 삼갈 6년	BC 1104~1099년	
	사사 웃니엘 7년	BC 1099~1092년	사사 삼갈 7년
	사사 에훗 10년	BC 1093~1084년	사사 에훗 10년
	사사 아일 22년	BC 1084~1072년	사사 아일 22년
사사시대의 종결		BC 1050년	
사사시대의 종결 340년		BC 1390~1050년	

출처 : 【구속사사리 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고 가나안땅을 항해했던 중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모세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민 27:23). 그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는 120세로 죽고, 이듬해 기원전 1405년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앞세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속한 장로들과 더불어 진두에 서서 나아갔고 그 뒤를 이스

라엘의 장정들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젊은 군인들을 뒤따르게 하고 늙은 장로들을 앞세운 전투에는 항상 군대 총사령관으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수 5:15).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다. 여호수아 생존시 겨우 소라와 에스다를 두 지역을 점령한 곳에 광야에서 이끌고 온 약 십만 명의 단지파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헐몬산 남쪽에 있는 라이스 성읍을 점령하여 그곳에 단지파 백성들이 거주하였다. 그리하여 라이스 성읍을 조상 단의 이름으로 개명하여 단 성읍이라고 하였고, 단 성읍은 저 아래에 소라에서 블레셋 민족과 싸우는 단지파 군대에 식량 공급과 병력을 지원하던 단지파의 후방 진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한 시기는 요단 서편 땅을 분할(BC1,400년)받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399년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 성읍의 초대 제사장으로서 추대되었다(사 18:30). 이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함께 하였다는 묵시이며 또한 장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단지파 자손에서 출현한다는 예표이기도 하다.

단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은 지, 십여 년간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도 블레셋 민족을 내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원전 1390년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도 8년간 메소포타미아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블레셋 민족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터는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었다. 먼 길을 원정해온 메소포타미아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강한 저항에 수세에 몰리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바로 그때 소라 성읍과 에스다를 사이 마하네 단에 진을 치고 있던 단지파 군대가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지원함으로써 블레셋 군대를 가나안 남단 가사 지역까지 패퇴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단지파 군대의 공적을 치하하면서 단지파 족장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그것은 단지파 백성들이 아얄론과 그리고 담나와 에글론을 점령하고 지중해 바닷가의 욕바 항구까지 진출함으로써 명실 공히 분배받은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이다. 헐몬의 단 성읍에 피신해 있던 수많은 동족들이 분배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와서 지중해 바닷가의 욕바 성읍에서 강력한 해상세력으로 발돋움하였으며, 또한 단의 진지 마하네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블레셋 민족과 대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었다.

BC 1,248년은 단민족이 소라에서 동으로 출발한 해

강력한 블레셋 민족과 대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기원전 1267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정제불명의 삼갈(사 3:31)은 곧 단지파와 삼손의 가명(假名)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활약한 시기를 마귀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소라 땅을 떠나 동북방으로 이주하는 단지파 민족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다. 삼갈이 사사의 자격으로 20년간 사역한 것과 사사 삼손이 20년간 사역한 것과 동일하며, 또한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인 과력 사건과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일천 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인 사건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삼갈은 곧 삼손임이 분명하다.

소라에서 출생한 삼손 장수가 이스라엘의 사사를 맡은 지 20년째 되던 해(BC 1248년)에 블레셋 나라의 미인에게 걸려들어 양쪽 눈알이 뽑힌 채 포로가 되어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재



삼손이 다곤신전에서 죽자 단지파는 소라를 떠난

관을 받게 되었다. 그때 삼손 장수는 블레셋 나라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육감으로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려는 재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기운이 센 천하장사였던 삼손은 육중한 신전 지붕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 두 개를 뽑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블레셋의 고관 장수들과 더불어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곧 기원전 1,248년에 삼손이 죽은 해이며 동시에 단지파 백성들이 이스라엘 소라 땅을 떠나 동쪽으로 출발한 해다.

그리고 삼손이 활약한 시기 단지파 백성의 문화 수준과 병력(兵力)은 동시대의 중국 상나라의 문화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났다. 이는 삼손의 죽음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소라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단지파 백성이 알타이 산맥까지 와서 우거할 때 중국의 주(周)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박태선 기자 / 고조선역사 연구가